

혼돈의 세상 다시 새기는 '스승의 글'



우리 선시 삼백수
정민 편역

시에 깃든 선승들의 '위로'

범속한 현실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왜소한 마음에 선승들의 담담한 말씀은 한 줄기 위로로 다가온다.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던 데서 한 발 떨어져 나와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옛 문헌을 탐구해 그 속에서 깊은 통찰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왔던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이번에는 스님들의 선시를 소개했다. 원문을 우리말로 풀이한 간결한 비평서다. 정 교수는 옛 문헌이나 불교 용어가 낯선 독자들이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담백하게 풀어낸다.

책에는 고려 중기 승려 우세 의천부터 근현대의 만해 한용운에 이르기까지 모두 31명 스님들의 시가 수록돼 있다. 스님들이 무심한 듯 던지는 다섯 자, 일곱 자의 말은 비스듬히 보이지만 행간을 살피면 문득 다른 세계가 보인다.

정 교수는 깊은 사유를 담은 농축된 말에 평을 덧붙이는 것이 오히려 군소리라 될 여지가 있다며 자신의 해석을 하나의 독법으로만 참고하라 권한다. <문학과지성사·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커넥터
안병의 지음

초연결시대 '입소문'의 힘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거리에서 수천 명이 모여 벌인 만세 시위가 해질 무렵 한강 이북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수개월 만에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됐다. 오늘날처럼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길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컴퓨터 과학 박사 안병의이 쓴 '커넥터'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얽혀 있는 '초연결 시대'인 오늘날, 연결을 구성하는 개체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야기한다.

저자에 따르면 1000만 관객을 모으는 영화, 맛집 앞 줄 서는 사람들, 유튜브 최고 조회 수를 기록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등은 복잡하게 얽힌 연결망에서 영향력자와 추종자들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나타난 현상이다.

<영림카디널·1만3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넋떠나...' '손잡고 더불어'

신영복 지음



"한 사람의 일생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를 준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일생에 담겨 있는 시대의 양(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비껴 간 사람을 정직한 삶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민족의 고통을 역이용하여 자신을 높여 간 삶을 정직하다고 할 수 없음을 물론입니다." (개인의 팔자, 민족의 팔자 중에서)

작년 새해 벽두에 들떠온 신영복(까진·1941~2016) 선생의 별세 소식은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다. 시대의 선각자이자 사상가이며 참치식인이었던 신영복.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선생(스승)이라고 칭한다. 스승이라는 존칭이 점차 어색하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신영복은 많은 이들에게 스승의 사표로 남아 있다.

신영복은 언제나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의 제자이자'



동시에 스승이며, 배우고 가르치는 사제의 연쇄를 확인하는 것이 곧 자기발전'이라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도 했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신영복과 같은 스승이 그리워지는 건 인지상정이다.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살다간 신영복 선생. 1941년에 태어나 2016년 76세로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은 우리 근현대사 격변기와 함께 한다. 그는 1968년 스물여덟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8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기까지 만 20년 20일의 수형 생활을 했다.

1주기를 계기로 유교집과 기존의 대담 10편을 뽑아 수록한 대담집이 출간됐다. '넋떠나 흘러흘러 어디로 가나'와 '손잡고 더불어'는 신영복이 남긴 말과 글이다. 전자는 선생이 발표한 글과 강연록 중 책으로 묶이지 않은 글들을 모은 것이고, 후자는 수형 생활을 마치고 이듬해 1989년부터 2015년까지 나는 대담 가운데 일부다.



"어머니는 지주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버님은 대구사범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자작농 정도는 되셨겠지요. 집안으로만 보자면 저는 좌익 사건에 연루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때문에 독방에 갇혀서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한 고민의 결론은, 이념 때문이라기보다는 양심의 문제였다는 것이었어요. 4·19와 5·16 사이에 목격했던 우리 사회의 억압 구조에 눈뜨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엄청난 억압과 부조리에 대한 청년다운 감수성 때문에 감옥에 앉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인찍하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념' 때문이 아닌 '양심'에 기인한 삶을 산다고 했다. 나이가 속도보다 여백, 존재보다 관계에 중심을 둔 삶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손잡고 더불어'에는 25년 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김경수, 정운영, 홍윤기, 김명인, 이대근, 탁현민, 정재승 등 가톨릭 사제, 경제학자, 철학자, 문학평론가, 언론인, 문화기획자, 과학자 등과의 대담은 사상이 신영복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넋떠나 흘러흘러 어디로 가나'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생의 미발표 유고 7편이다. 유품 속에서 나온 낱장으로 된 글들

로 A4용지보다 약간 긴 갱지에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씨가 성품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통역당 사견으로 감옥에 수감되기 전 1968년 이전에 쓴 글이다. 젊은 날의 습작이지만 20년 뒤 발아하게 될 신영복 서간문학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석과불석, 우리가 지키고 키워야 할 희망의 언어'는 작금의 상황을 예견한 듯 그 울림이 가법지 않다. "정지란 무엇인가. 평화와 소통과 변화의 길이다. 광화문(光化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길이다." <둘베개·각 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자인의 역사에 대한 성찰



역사는 디자인된다
윤여경 지음

'가디언' 편집자 데이비드 웨일스는 "디자인은 너무 중요해서 디자이너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말한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는 소통을 능력을 키워 더욱 협조적으로 되는 것, 또 하나는 중요한 디자인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것만 큼 자부심과 사명감에 한껏 고취돼 디자인에 임하라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직업과 직군이 그러하

겠지만 디자이너는 종종 혼란에 빠진다.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순수 예술가처럼 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디자인 작업의 시작점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자리한 이유다. 디자인 역사를 성찰한 책이 나왔다.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디자인 저술가인 윤여경 국민대 겸임교수가 펴낸 '역사는 디자인된다'는 세계사의 큰 줄기를 따라 구성해 본 디자인의 역사다. 열핏 제목만 맡길 수 없다"고 말한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는 소통을 능력을 키워 더욱 협조적으로 되는 것, 또 하나는 중요한 디자인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것만 큼 자부심과 사명감에 한껏 고취돼 디자인에 임하라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직업과 직군이 그러하

보다 보편적 이론이 없어 디자인 개념이 상황마다 달라지고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는 많은 디자인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저자는 그 자신이 잘한다고 말하는 '압축' 능력을 통해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역사를 소개한다. 유구한 인류 문화의 흐름 속에 존재한 디자인의 뿌리를 발견함으로써 외부에서 이식될 수 없는 정체성과 정체성을 심고 가꾸자는 제안이다. 특히 세계사의 큰 줄기를 따라 구성한 기단 디자인 역사 연표는 디자인적 성실성은 물론 역사에 대한 빛나는 통찰을 보여준다. 또한 디자인 현상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며 디자인에 내재한 시대적 영향력에도 주목한다. <민음사·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다의 모든 것 과학으로 풀다



바다상식
김용서 지음

헤어질 수 없는 많은 생물을 품고 있는 바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파도는 왜 칠까? 바닷물은 왜 소금물일까? 바다의 과거와 미래를 과학으로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김용서 한국해양학회장이 펴낸 '바다상식'은 바다의 생성과 변화를 둘러싼 생물학적, 지구과학적 비밀을 재미있게 풀어준다. 인간은 바다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

들다.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일부는 바다의 식물플랑크톤이나 대형 해조류가 만든다. 물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바다다. 이렇듯 바다는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 문제에 직면한 인류의 식량 창고이자 자원 광산이며 미래의 생존 터전이다. 때문에 바다를 신중하게 활용하고 보호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바다를 제대로 아는 자제가 필요하다. 저자는 바다가 미래 인류의 생활공간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닷속에서 건물을 짓는 기술이 발달하면 해중도시가 탄생하고, 해저빌딩 사이로 해중산책로도 생겨갈라는 얘기도. <지성사·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협회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우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 후

한국방수방수연구소 02-462008-24에 기계장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시험결과: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장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이너 간 렌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못 임하듯 시공함으로써 건물물 합치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해택닷컴**에서 만나보세요!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